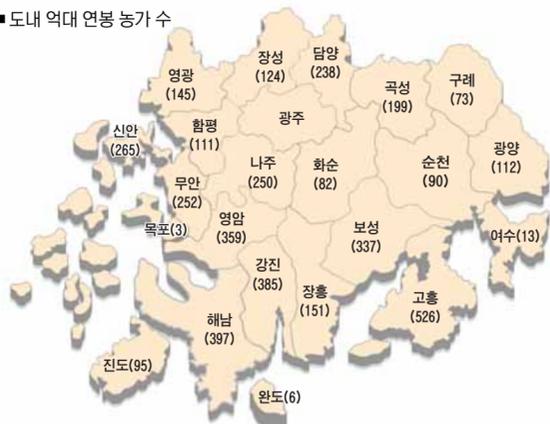


전남 역대 부농 4213가구... 고흥에 526호 3년 연속 '최다'

■도내 역대 연봉 농가 수



전년보다 3.6% 늘어...1~2억원 83%, 2~5억원 14%
 해남 397호·강진 385호...품목, 식량작물·축산·채소 順

전남에서 소득 1억이상 부자 농민이 가장 많은 곳은? 바로 고흥군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부농이 가장 많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고흥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고흥군은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3년 연속 1억원 이상 농가 최다를 기록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고흥군의 소득 1억원 이상 부농은 526호였으며, 해남군(397호), 강진군(385호), 영암군(359

호), 보성군(337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도내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부농은 모두 4213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48호가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1억~2억원의 소득을 올린 농가가 3507호로 전체의 83.2%를 차지했으며, 2억~5억원의 소득을 올린 농가는 604농가(14.3%), 5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102농가(2.4%)나 됐다.

전남도는 2014년 농산물 시장개방 확

대, 농자재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민들의 노력과 함께 영농 조직화·규모화 정책, 친환경농업 및 품질고급화 전략 등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는 품목별로 식량작물 분야가 1480호(35.1%)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분야와 채소분야가 각각 1357호(32.2%)와 646호(15.3%)로 그 뒤를 이었고, 그밖에 과수분야가 266호, 가공·유통분야 200호, 특용작물 121호 순이었다.

전남도는 지난 2013년 12월1일부터 2014년 11월30일까지의 농가소득에 대해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업진흥청 자료)'을 활용, 농

가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기서 농가소득은 순소득 개념으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 소득 및 비경상 소득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품목별 연구모임을 활성화해 고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경영·마케팅을 포함한 최적 경영모델을 발굴해 그 사례를 농민들에게 알리고, 품목별·시군별 대표적 고소득 농가를 선정해 농고·농대생 및 귀농인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근조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19년까지 역대 부농 1만 가구 육성을 위해 5000만원 이상 잠재 고소득 4509호를 특별 지원·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에 네번째 추기경 탄생할까

교황, 이달 새 추기경 임명...김희중 광주대교구장 '주목'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출신 추기경을 이달 새로 임명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나와 국내 가톨릭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일(현지시간) 교황이 이달 내에 한국을 포함해 가톨릭교세가 커지는 비유럽, 비북미 지역 출신 추기경을 상당수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필리핀은 가톨릭 신자가 많아 세 번째 추기경이 예상되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가톨릭 신자가 많지는 않지만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추기경 배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뒤 첫 아시아 순방지로 지난해 한국을 택한 점도 한국인 추기경 추가 탄생 기대감을 높인다.

한국에서 고(故) 김수환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 염수정 추기경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추기경이자, 처음으로 세 명의 추기경이 있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1300여 년 만에 첫 비유럽계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많으면 12명의 추기경을 새로 임명한다. 80살 아래 추기경들은 교황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추기경 임명은 교황의 핵심적인 권한이다.

한국인 새 추기경으로는 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68·광주대교구) 대주교와 전 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70·제주교구) 주교, 대전교구의 유홍식(64) 주교가 물망에 오른다. 이들은 지난해 19



김희중 대주교 강우일 주교 유홍식 주교

명의 추기경이 임명될 때에도 주요 후보로 거론됐다.

2014년 말 현재 추기경은 111명으로, 교황이 이번엔 12명을 새로 임명하면 전체 추기경 가운데 4분의 1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뽑은 사람들로 채워진다.

/김경민기자 kki@연합뉴스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구호활동 중 에볼라 바이러스 노출 상황을 겪고 3일(현지시간) 독일로 후송된, 국내 구호의료진 한 명이 치료받고 있는 베를린 소재 사리테 병원 전경. /연합뉴스

문건 유출 동기·'비선실세' 의혹 여전

검찰, 오늘 '정윤희 문건' 수사 결과 발표...조용천 기소

비선개입 논란을 촉발한 '정윤희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파헤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5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다. 특수부까지 투입해 속전속결 수사에 나선 지 36일 만이다.

검찰은 연말정국을 휘감은 이른바 '정윤희 문건' 내용 가운데 최소한 '십상시' 비밀화동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씨와 박지만 EG 회장의 권력암투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미행설' 역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여부는 본격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용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허위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밖으로 빼돌리는 무리수를 둔 이유도 속 시원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용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 달 넘게 진행한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보도했던 '정윤희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정씨가 2013년 말 용역회사 직원을 시켜 오토타이로 박지만 회장을 뒤쫓았다는 미행설도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 판명됐다. /연합뉴스

'정본청원'(正本淸源)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 교수들이 뽑은 새해 사자성어

교수들이 새해 바람을 담은 사자성어로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의 '정본청원'(正本淸源)을 꼽았다.

교수신문은 지난달 8~17일 전국의 교수 724명을 대상으로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를 설문한 결과 265명(36.6%)이 정본청원을 선택했다고 4일 밝혔다. 정본청원은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으로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서 비롯됐다.

이승환 고려대 교수(철학과)는 추천 이유에 대해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아 근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에볼라 의심 국내 의료진 '음성'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구호활동을 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겪고 독일로 후송된 국내 구호의료진 한 명은 지난 3일 오후(현지시간) 후송 후 첫 채혈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의 관찰 치료를 맡은 유럽 최대의 독일 베를린 소재 사리테 전문병원 측은 "이 의심 환자는 현재로서는 발열 등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세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결과 발표에 앞서 이 병원의 프랑크 베르크만 격리병동 책임의는 "지금 에볼라 증세가 보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주삿바늘에 찔려도 감염되지 않은 몇몇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혈액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 의료진은 대체로 발열 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증상은 6~10일간을 지나야 정밀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러스 잠복 기간은 길게는 21일이기 때문에 이 의심 환자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지난해 12월 30일(한국시간) 기점으로 볼 때 이달 10일 전후가 돼야 한층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심 환자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관 아래 마련된 특별기를 타고 베를린 테겔 공항을 통해 독일로 들어온 뒤 병원으로 옮겨져 관찰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로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